

KOCHAM

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5년 3월 25일(수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2월 내구재주문 전월대비 1.4% 감소, 예상 하회
- 2) 국채 수익률, 경기지표 호조에 소폭 하락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헝가리, 기준금리 1.95%로 인하, 사상 최저치
- 2) 독일, Ifo 기업신뢰지수 107.9, 5개월 연속 호조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미국 제약사 머크, 11조원 규모 자사주매입 발표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2월 내구재주문 전월대비 1.4% 감소, 예상 하회

- 지난 25일 미국의 지난달 미국 내구재주문이 전월보다 1.4% 감소했다고 발표
 - 이는 직전월 수정치 기록인 2.0% 증가를 크게 하회하는 결과이며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0.4% 증가를 하회
 - 이로써 내구재주문은 지난 4개월 동안 모두 3번의 감소세, 내구재주문은 지난해 12월엔 3.7% 감소를, 11월엔 2.2% 감소를 기록
- 또한, 미 달러화 강세와 글로벌 수요 약세 속에서 제조업 전망의 가늠자인 내구재주문이 부진을 나타냄에 따라 미국의 1분기 GDP 전망에 대한 우려 상승
 - 이코노미스트들은 현재 연율 기준으로 1.2~2.0% 증가가 전망되는 1분기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 보임
- 한편, 변동성이 큰 운송 부문을 제외한 지난달의 핵심 내구재주문은 0.4% 감소, 전망치인 0.3% 증가를 하회

2) 국채 수익률, 경기지표 호조에 소폭 하락

- 지난 25일, 트레이드웍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전날보다 3.7bp 하락한 1.878%를 기록했다고 보도
 -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또한 4.5bp 떨어진 2.464%로 장을 마감
- 이날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(CPI) 상승률은 0.2%로 전월 대비 4개월 만에 다시 플러스(+) 영역에 진입
- 한편, 지난달 신규 주택판매 건수는 전월 대비 7.8% 증가한 53만9000건을 기록, 2008년 2월 이후 최대치를 나타냄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헝가리, 기준금리 1.95%로 인하, 사상 최저치

- o 지난 24일 헝가리 중앙은행은 정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.1%에서 0.15% 포인트 낮춘 1.95%로 운용한다고 발표
 - 헝가리 금리가 1%대에 진입한 것은 1960년대 공산주의 계획경제 이래 처음으로 2012년 7월 7%이던 금리를 2년간 매달 0.15-0.2% 포인트씩 낮춰 2.1%로 유지
- o 또한, 헝가리는 금리 인하 행진 덕분에 시중 자금이 풍부해져 다른 유럽국가보다 비교적 나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ECB의 양적완화로 인해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는 게 헝가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변수로 부상
 -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헝가리의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결과
- o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(1.9%)보다 기준금리 인하폭이 크지 않았던 않았던 것에 따라 이날 헝가리 포린트화 가치는 상승세
 - 포린트 / 유로 환율은 헝가리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 직후 전일 대비 1.2% 하락(포린트 가치 상승)한 299.99 포린트를 기록
- o 한편, 헝가리의 CPI는 2월에 전년 동기 대비 1% 하락한 것으로 집계
 - 헝가리의 CPI 상승률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(-) 영역에 진입하였고 헝가리 중앙은행은 내년 헝가리의 CPI 상승률 전망치를 2.6%로 제시, 이는 기존 전망치인 2.9%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

o 또한, 헝가리 중앙은행은 헝가리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3.2%, 2.5%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, 이는 기존 전망치인 2.3%, 2.1%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

2) 독일, Ifo 기업신뢰지수 107.9, 5개월 연속 호조

o 지난 25일, 싱크탱크(Think Tank)인 이포(Ifo)는 독일의 이번 달 기업신뢰지수가 107.9를 기록,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감을 발표

- 이는 지난달 기록인 106.8보다 1.1포인트 높고 전문가 예상치 107.3보다 0.6포인트 상회하는 수준

- Ifo 기업신뢰지수는 매월 7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되며 향후 6개월간 기업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지표로 활용,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 확장, 100을 하회하면 경기 위축을 뜻함

o 또한, 기업들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지난달 111.3에서 이번 달 112.0으로 0.7포인트 개선, 향후 6개월간 경제 상황 전망도 103.9를 기록해 지난달 102.5보다 1.4포인트 개선됨

o 독일의 Ifo 기업신뢰지수는 독일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가늠자로 활용되며 독일증시인 DAX 지수의 궤적을 밀접히 따라가는 경향이 있음

o 한편, 독일 경제는 유럽중앙은행(ECB)의 전면적 양적완화(QE) 실시 발표 이후 유로화 약세, 저유가, 가처분 소득 증가 등의 호재를 만나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경기 회복 추세가 뚜렷함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미국 제약사 머크, 11조원 규모 자사주매입 발표

- 지난 24일,마켓워치는 미국 제약회사 머크가 10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매입을 결정했다고 보도
 - 이로 인해 머크의 자사주매입 규모는 총 177억달러로 증가했으며 머크는 지난 2013년 5월 17억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음
- 케네스 C. 프레이저 머크 CEO는 자사주매입 결정과 강한 배당은 주주들에 대한 가치 환원을 하려는 머크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며 이번 매입은 머크의 장기 사업 전략 및 미래 전망이 굳건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
- 한편, 머크는 태생이 같은 독일 머크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북미지역 외에서는 MSD(Merck Sharp & Dohme)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독일 머크는 북미지역에서 EMD(Emanuel Merck Darmstad)라는 명칭을 사용